

월동 뒤영벌류(벌목: 꿀벌과)의 출현시기 및 방화식물

김삼은, 이흥식, 윤형주, 이상범, 박인균
농업과학기술원 잠사곤충부

2000년도 3월부터 5월 사이에 뒤영벌아과의 월동여왕벌 총 2속 8종 1274개체를 채집하였다.

이 중에서 좀뒤영벌(*Bombus ardens*)이 745개체(58%)가 채집되었고, 호박벌(*B. ignitus*)은 427개체(34%)가 채집되어, 이 두 종이 전체 채집량의 90% 이상을 차지하였다. 그 외의 뒤영벌을 많이 채집된 순으로 보면, 우수리뒤영벌(*B. ussurensis*), 삼포로뒤영벌(*B. hypocrita sapporoensis*), 황토색뒤영벌(*B. consobrinus wittenbergi*), 슈렌키뒤영벌(*B. schrenki*), 서양뒤영벌(*B. terrestris*)의 5종이었고, 딱벌속은 진딱벌(*Psithyrus coreanus*) 1종 뿐이었다.

많이 채집된 시기는 좀뒤영벌이 4월초이고, 호박벌을 포함한 나머지 5종은 5월 중·하순이었으며, 좀뒤영벌이 주로 방화하는 꽃은 진달래와 벚나무이고 호박벌이 주로 찾는 꽃은 벚나무, 산피불주머니, 철쭉이었다.

뒤영벌류의 방화활동을 시기별로 세분하면 3월말에서 4월중순까지는 진달래와 갯버들에서 주로 좀뒤영벌이 관찰되었고, 4월중순이후에는 산피불주머니와 벚나무에서 호박벌을 비롯한 4종의 뒤영벌류가 채집되었다. 5월 들어서면서 다른 목본류들도 개화하여 뒤영벌류의 방화가 여러식물로 분산되었으나 호박벌의 채집수는 증가하였는데, 그 대부분이 산피불주머니에서 채집되었다.

지역별로는 강원도(389), 경기도(384), 경상남도(298), 전라북도(179) 순으로 많이 채집되었으나, 채집횟수 당 채집량은 강원도와 전북이 많았다. 시설작물에서 화분매개 유망종으로 기대되는 호박벌은 주로 강원도의 정선과 원주, 전북의 무주에서 채집되었다.